"모성성"의 허상과 "여성상"의 왜곡 해체하기: 『모성의 기쁨』(*The Joys of Motherhood*)과 『율리시스』(*Ulysses*) 비교*

이 영 심

- 차 례

- 1. 서론
- 비. 전통적 가부장제 이데올로기: 강요된 모성과 남아선호사상의 굴레
- Ⅲ. 식민지적 상황에서 기인하는 여성의 이중적 고통
- IV. "모성성"의 허상 극복을 위한 가능성 제시
- V. 결론

[. 서론

동서양을 막론하고 전통적으로 여성들에게 강조되어온 덕목중의 하나인 "현모양처"개념이 내포하는 가장 큰 문제점은, 여성들의 독립된 주체성을 지우고 그 자리를 "누군가의 아내"와 "누군가의 어머니"라는 역할로 대체시킨다는 점이다. 이는 뤼스 이리가레이(Luce Irigaray)의 지적처럼, "이론이든 도덕성이든 정치든 모든 담론의 주체였던 남성들"이 여성들의 독립된 "자아"를 인정하지 않으려 해왔던 역사적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1993, 8)

플로라 누와파(Flora Nwapa)와 더불어 나이지리아를 대표하는 여성 작가 중의 한 사람인 부치 이메체타(Buchi Emecheta)가 1979년에 발표한 『모성의 기쁨』은, "모성의 기쁨"이라는 허울 속에서 살다가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는

^{*}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NRF-2011-35C- A00787]

누 이고(Nnu Ego)의 비극적 생애를 포착한다. 이를 통해, 가부장제 남성이데 올로기가 여성에게 교묘하게 덧씌워 왔으며, 여성 스스로도 자기 최면에 빠져 버린, "숭고한 모성"의 허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이메체타는 이처럼 "모성성의 문제적 성격"에 주목하면서, 강요된 "모성"에 희생당하는 누 이고의 모습을 통해, "모성을 생물학적인 여성의 운명으로 간주하는 어리석음"(Polatnick 693)에 대해 근본적으로 제고할 것을 요구한다.

누 이고는 불평등한 교육의 기회와 힘든 가사 노동에 시달리면서 동시에 남편을 대신하여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져야하는 이중 삼중의 굴레로 인해 고통받는 당대 아프리카 여성의 삶을 대표한다. 신씨아 워드(Cynthia Ward)가 지적하듯이, 이메체타는 『모성의 기쁨』을 통해, 아프리카 여성들에게 강요된 허위적 모성성과 왜곡된 여성성의 굴레의 결과를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그녀의 소설은 (여성을) 역사적 하찮은 존재로 규정한 것에 맞서서 자신의 자아-인간 사회가 만들어낸 모든 억압의 형식 즉, 인종적, 성적, 식민지적 억압의 형식으로 인한 고통을 통해서 구성된 자아-를 확인하기 위한 아프리카 여성들의 경험을 대표한다. 자기자신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유사하게 억압받은 다른 이들을 위해 말하기 위해서, 자신의 진정한 목소리를 찾아야만 하는 자아를 확인하는 경험인 것이다. (Ward 83)

아프리카 사회 속에서 여성은, 독립적인 개인으로서의 자아를 정립하는 대신에, 남성의 아내이자, 그 남성의 자식의 어머니로서 고정된다. 이는 이메체 타의 다른 텍스트의 제목인 『신부 지참금』 (Bride Price)이 함축하듯이, 여성을 남성이 돈을 주고 사는 "미미한 존재"로 전략시키는 데서 시작된다. 이 과정에서 누 이고는 스스로 자신의 역할을 남편의 아이, 즉, 남자아이를 낳아주는 역할로 축소시킴으로써 가부장적 가치관을 자신의 의식 속에 내재화시켜버린다. 그녀의 허무하고 비참한 죽음을 통해서 텍스트의 제목인 『모성의 기쁨』은, 역설적으로 "모성의 고통"을 드러내면서, "모성"에 갇혀서 자아를 상실한 채, 오직 "타인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 것이었는지를 보여준다.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누 이고와는 다른 삶을 선택하는 아다쿠(Adaku)나.

누 이고의 엄마인 오나(Ona), 그리고 누 이고와는 다른 세대에 속하는 그녀의 딸 케힌드(Kehinde)의 모습을 통해서 모성성에 함몰되었던 누 이고의 삶과는 다른 대안을 제시한다.

제임스 조이스(James Joyce) 역시 1922년에 발표한 『율리시스』에서 호머이래로 "정숙한 여성상"의 원형으로서 제시되는 『오디세이아』의 '페넬로페'(Penelope)를 끌고 들어와, 여성을 독립된 개인 주체로 보기보다는, "남편의 아내"와 "남편의 아이들의 어머니"로서 규정하고자 했던 서구 사회의 뿌리 깊은 가부장적 가치관을 드러낸다. 동시에 "페넬로페"라는 이 전형적 여성상을, 몰리 블룸(Molly Bloom)이라는 "반—페넬로페"(Anti-Penelope)적 여성 인물로 대체한다.

몰리는 "자신의 몸에 대한" 여성적 말하기 혹은 "여성적 글쓰기"(Sternlieb 757)를 통해 자신을 남성들의 욕망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욕망의 주체로서 세운다. 이렇게 함으로써 서구의 문학의 태동기부터 이미 뿌리내려 온 남성중심주의적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무시간적인 신화의 세계가" 조이스에 의해 "동시대의 현실성의시간적 세계"(Booker 27)로 탈바꿈되는 이 과정에서 페넬로페와 상반된 가치관을 가진 몰리 블룸의 강력한 내적 독백은, 남성들에 의한 "여성성에 대한 문화적 이미지들"을 드러내고, 이러한 이미지들에 대한 "반복과 패러디, 전유, 그리고 비웃음을 통해 여성의 본성에 대한 사회적 구조화에 대한 가면 벗기기"를 극대화시킨다.(Pearce 7)

『율리시스』와『모성의 기쁨』은, 이처럼 가부장제하의 남성 중심적인 보수적인 이데올로기 속에서 여성들에게 외부로부터 강요되어온 "모성"과 왜곡된 "여성상"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공통점을 보여준다. 더 나아가 두 텍스트는 공통적으로 두 여성인물의 공간적 배경이 되고 있는 아일랜드와 나이지리아가 영국의 식민지배하에 놓인 상황에서 여성 인물들이 겪는 이중적 고통을 드러낸다. 여성 인물들은 전통적인 가부장제 이데올로기가 강요하는 왜곡된 "여성상"의 굴레와 동시에, 피식민지 상황 하에서 남성이 제대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데서 기인하는 이중 삼중의 책임을 감내해야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다. 조이스에게 있어서 문학을 통한 정의의 구현의 문제는 "당시 극단

적인 국수주의와 제국주의적 부당함으로 가득 찬 아일랜드의 역사적 상황에서 해방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는 이메체타에게도 핵심적인 문제이기도 했다.(Castle 306)

두 작가의 성별(gender)상의 차이와 상이한 서술 기법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식민지지배를 받고 있는 아일랜드의 "식민지 지식인"으로서 조이스가 경험한 정치적 소외와 억압은 그로 하여금 "서구 사회 속에서 항상 소외된 존재로서의 삶을 강요받아왔던 여성들의 상황"에 대해 보다 깊이 있는 인식을 하게만들었으며, 이러한 점은 이메체타의 텍스트와 조이스 텍스트를 연결시키는지점을 형성하는 중요한 열쇠가 된다.

이 글에서는 두 작가가 공통적으로 천착하고 있는 이러한 문제의식들, 즉역사적으로 공고화된 가부장제하에서 강요되어온 "여성상"의 왜곡과 "모성성"의 허상의 측면을 중심으로 두 텍스트를 비교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전통적인 가부장적 이데올로기가 내포하는 부정적인 측면과 아울러, 제국주의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피식민지적 상황에서 여성에게 전가된 이중적 질곡의 문제를 분석할 것이다. 더 나아가 각각의 텍스트에서 시도하고 있는 기존의 왜곡된 "여성상"에 대한 해체와 "새로운 여성상"의 제시가 갖는 의미와 그 한계점을 비교 분석해보고자 한다.

II. 전통적 가부장제 이데올로기: 강요된 모성과 남아선호 사상의 굴레

『모성의 기쁨』에서 부치 이메체타가 여성들의 삶을 질곡으로 빠뜨리는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진단하고 있는 것은, 누 이고의 부족 사회인 이부자에 남아 있는 "일부다처제의 사악성"(Bruner 134)과 "남아선호 사상"이다. 그녀는 "가부장적 제도와 관습을 이보(Igbo)사회의 여성들을 짓누르는 사악함"으로 보았고 이에 대한 공격을 "비타협적으로" 시도하였다.(Ezeigbo 160) 전통적인 가부장적 사회 구조 안에서 남성들의 소유물로 전략한 여성들의 삶의 피폐화의 측면에 그녀는 우선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남아선호사상 문제와 일부다처제에 대한 문제의식은 『율리시스』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측면으로, 이는 두 텍스트의 첫 번째 교집합을 형성하는지점이다. 이타카(Ithaca)를 떠난 오디세우스(Odysseus)가 페넬로페가 아닌다른 여성들과 거리낌 없이 혼외정사를 가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블룸 역시 난삽한 여성 편력을 보여줌으로써 비록 제도화된 "일부일처제"는 아니지만, 남성들의 혼외정사에 대해서 너그러웠던 서구 사회의 단면을 드러낸다. 또한 오디세우스와 텔레마커스에서 시작하여 블룸(Bloom)과 그의 아들 루디(Rudy), 사이먼 디덜러스(Simon Dedalus)와 스티븐(Stephen)으로 이어지는 부자관계에 대한 반복적인 언급과 "상속자"로서의 아들의 위치에 대한 강조를 통해, 『율리시스』는 서구 사회에 뿌리박고 있는 남아선호사상에 대한 강박적 의식을 텍스트의 곳곳에 배치하고 있다.

『모성의 기쁨』에서 일부다처제와 남아선호사상으로 희생되는 대표적인 인물은 바로 이 텍스트의 여주인공인 누 이고이다. 그녀는 나이지리아 부족의 추장의 딸로서 태어나 그에 걸맞은 성대한 첫 결혼식을 치르지만 아이(혹은 아들)를 낳지 못하자, 순식간에 사회적 위치의 추락을 겪는다.

"아마토쿠(Amatokwu), 제가 당신 집에 처음으로 왔을 때를 기억하나요? . . . 아마토쿠,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요? 당신을 위해서 아이를 낳아주지 못한 것이 내 잘못인가요? 나또한 고통을 겪고 있다고 생각지 않나요?"

"내가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는 거지?... 나는 바쁜 사람이라고. 나는 소중한 남성의 씨앗을 불모인 여자에게 낭비할 시간이 없단 말이지..."

누 이고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눈물을 흘렸다. 집에 도착했을 때 그들을 반긴 소식은 아마토쿠에게 (그의 다른 아내에게서) 아 들이 태어났다는 것이었다.

"아버지, 첫 번째 아내로서의 제자리는 더 어린 여자에게 넘어 가버렸어요." (*The Jovs of Motherhood* 31)¹⁾

¹⁾ 이하 JM으로 표기함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부자의 전통적 사회의 공간은 여성들에게 "유토피아나 식민지 지배 이전의 낙원이 아니다"(Cynthia 92). 일부다처제의 관습이 정당한 것으로 치부되는 그 곳에서 누 이고는 "남편과 (아이의) 재생산에 복종해야하며"(Iregaray 1987, 3) 그녀의 가치는 남편에게 오직 아들을 낳아주는 역할로서 축소되고 만다. 가정은 그녀를 하나의 독립된 주체로 인정해 주는 것이아니라, 오직 남성 종족의 재생산을 위한 도구로 간주하는 이부자의 전통적 가치관을 요구할 뿐이다. 결국 아들을 낳지 못한 그녀는, "결격사유"를 가진 것으로 간주되어, 젊은 아내에게 자신의 자리를 건네주고 쫓겨난다.

이후 그녀는 어쩔 수 없이 백인의 세탁부 노예인 나이페(Nnaife)를 두 번째 남편으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상황에 놓인다. 그리고 나이페의 아들을 출산했을 때에야 비로소 그녀는 "자신의 삶에서 최초로 충만감"을 느끼지만, 그 아이가 갑작스럽게 죽었을 때, 그녀는 삶의 의미를 상실한다. 이처럼 그녀의 의식속에서는 자기 자신이 아닌 "아들"이 모든 것이 되어 버린 것이다.

그녀는. . . 이 아이가 아들이라는 사실이 그녀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충만감을 주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 . 누 이고가 물건을 팔기 위해서 철길 마당에 있는 자신의 간이 판매대로 가기 전에 아기를 등에 업으려다가, 자신의 아기 응고지(Ngozi)가 바로 조금전에 자신이 눕혀 놓았던 그 자리에 죽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아기는) 완전히 죽어 있었다. (JM 57)2)

누 이고에게 있어 아들은 자신의 존재성을 최초로 확인시켜 주는 존재이며, 그 아기의 죽음은 그녀를 극도의 혼란 상태로 몰아넣는다. 즉, 그녀는 한 인간 으로서의 독립된 위상을 확보하지 못하고 그녀가 속한 사회의 규범이 여성에 게 요구하는 "남편의 대를 이어줄 남자아이를 출산하는 것"을 자신의 가장 중 요한 역할로 내화시켜 버림으로써 정체성을 확보하는데 실패한다.

이러한 상황은 비단 전통사회인 이부자의 정착지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닌데, 그것은 라고스(Lagos)라는 식민지의 도시 공간에서 그녀의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먼저 그녀는 나이페의 형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가 형의 아내들

²⁾ 필자 강조

을 상속 받는 과정을 통해 이부자의 뿌리 깊은 일부다처제가 그녀의 삶의 공간 으로 침투하게 되는 것을 겪는다. 이 과정에서 그녀는 다시 한 번 일부다처제 로 인한 깊은 상처를 받게 된다.

그녀는 억지로 즐거운 표정을 지으며 이부자(Ibuza) 부족의 교양 있는 아내인 척하며, 자신의 집으로 들어오는 다른 여자를 환영하려고 노력했다. . . 지금 나이페가 단지 두 명의 아내가 아니라세명, 네명의 아내와 함께 지내는 것을 계획하는 일이 어쩌면 먼미래의 일이 아닐 지도 모른다. . . 누이고는 나이페와 아다쿠를위한 침대를 준비하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으려고 애썼다. . . 누이고는 커튼 뒤의 침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지를 상상하면서, 밤새도록 고통과 분노 속에서 몸부림쳤다. . . 누이고는 비명을 지르지 않으려고 이빨로 아기 잠옷을 물었다. (JM 133-9)

남편의 새 아내인 아다쿠(Adaku)가 남편과 첫날밤을 보내는 것을 커튼 한장을 사이에 둔 채 견뎌내면서 비명 소리마저 억누르며 누 이고가 이 모든 것을 감내하는 이유는 그녀의 의식 속에 일부다처제가 하나의 당연한 규범으로들어와 있기 때문인 것이다. 이처럼 가부장적 가치관 속에 그녀의 의식이 감염되어 있기 때문에, 순간순간 자신의 처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다가도 누 이고는 궁극적으로는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에 순응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만다.

결국, 그녀는 자신과 자신의 아이들을 부양해주는 남편을 차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첫째 임무인 그의 "아들"을 낳는 것에 집중한다. 즉, 그녀는 남편의 "다른 아내들"과 자신을 그러한 불합리한 틀 속에 가두어 버린 남성위주의 가부장 적 사회에 대한 문제제기는 생각지도 못한 채, 남편의 여자들과 피 흘리는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그녀는 또한 안도감을 느꼈다. 그녀 자신의 삶 역시 아다쿠의 삼처럼 되었을 수도 있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녀는 세 명의 아들의 어머니였기 때문에 가난 속에서도, 손톱을 물어뜯는 고통 속에서도, 뒤틀리는 위장에도, 그리고 비좁은 방 속에서

도 행복할 수 있을 것이었다. . . 그들은 단지 그녀가 아들들의 어머니였기 때문에 그녀를 무죄로 보이도록 해주었던 것이다. (*JM* 187)³⁾

여기서 보는 것처럼, 자신이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아들을 낳지 못한 남편의 아다쿠와의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안도감을 느끼는 누이고의모습은 이러한 상황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그녀와 아다쿠가 한 명의 남편을 사이에 놓고 경쟁을 계속하는 한, 그녀들은 서로를 물고 할퀴며 질시를 일삼을 수밖에 비참한 처지를 벗어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자신들의 자식들에게 그러한 가치관을 전달시켜주는 악순환의 연결고리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여자는 추하고 늙을 지도 모르지만, 남자는 결코 추하지 않으며 결코 늙지 않는다"(JM 75)라는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이분법적 잣대를 들이대는 이부자의 가부장적 남성 우월적 가치관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그녀들의 삶은 계속적인 피폐화과정을 겪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누 이고는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율리시스』역시 이미 서구 사회가 전통적으로 남성 중심적 가부장적 이데 올로기를 공고화시켜왔음을 날카롭게 지적한다. 먼저『율리시스』는 서구 문학의 시발점으로 인식되고 있는『오디세이아』에서의 전형적인 남녀 관계인 오디세우스와 페넬로페의 문제적 관계를 끌고 들어온다. 19년 동안이나 이타카에아내를 내팽개쳐 놓은 채, 떠돌면서 다른 여성들과 숱한 혼외정사를 저지르다가 마침내 이타카에 돌아온 오디세우스는 당당하게 페넬로페의 정절을 요구한다. 이러한 가치관을 옹호하는 호머의『오디세이아』의 세계와 나이지리아의전통 부족의 이부자의 공간과 크게 다르지 않는 것이다. 비록 형식적으로는 일부일처제이만 암묵적으로는 "일부다처제"를 허용하는 서구 사회의 사회적 상황을 텍스트 속에 끌어들인다. 특히『율리시스』는 보수적인 남성 중심적인 인물들을 등장시켜 20세기 아일랜드의 공간속에서도 여전히 이러한 가치관이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반페미니즘적 성향을 가진 디시(Deasy)"(Brown 116)나 시티즌(Citizen)등의 보수적인 남성들의 의식의 심층에는 남

³⁾ 필자 강조

성들의 저질러온 수많은 혼외정사나 외도에 상관없이 "세상에 죄를 가져온 이 브," "메넬라우스에게서 도망친 헬렌," 그리고 "파넬(Parnell)을 끌어내린 여자" 인 오쉬아등이 자리잡고 있다.

한 여자가 세상에 죄를 가져왔지. 그녀보다 더 나을 것도 없는 여자, 즉, 메넬라오스의 도망친 아내인 헬렌 때문에 10년 동안 그리스인들은 트로이 전쟁을 해야만 했지. 정절을 지키지 못한 아내가 여기 우리 땅에서 최초로 이인들을 데려왔지. 맥머로의 아내와 그녀의 정부인 브레프니의 왕자인 오루케말일세. 한 여자는 파넬을 추락시켰지. 많은 잘못들이 있다구. (U 2, 390-4)

보수적 남성들을 대변하는 시민이나 디시 교장과 같은 인물들의 결론은 "남자를 속인 아내들이 자신들의 모든 불행의 원인"(U12. 310)이다. 이처럼 "불충실한 아내라는 주제는 『율리시스』 곳곳에서 울려 퍼지며"(Spoo 451), 심지어 초기 조이스 비평가들까지도 몰리 블룸을 "악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죽음과 세상의 파괴와 연관"시키고 있다.(MaCormick 31)

시민이나 디시와 같은 보수적인 남성 인물들과는 분명한 차이를 보여주는 블룸도 역시 이러한 보수적인 남성 중심적 가치관에 감염되어 있다. 그는 몰리의 친구들과 관계를 맺고, 집의 하녀인 메리와도 놀아났으며, 현재에는 마사라는 여자와 은밀한 편지를 주고받고 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다른 여자들에 대한 욕망이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그의 이러한 모습은 몰리를 고통스럽게한다. 몰리는 특히 하녀인 "메리"와 "자신의 면전에서" 놀아났다는 사실에 분통을 터트린다(U18. 56). 비록 일부다처제라는 제도적인 틀은 존재하지 않지만, 남성들의 의식 속에서는 여전히 오디세우스처럼 아내이외의 다른 여성들과 자유롭게 즐기고 싶은 욕망이 내재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모성"이라는 틀 안에 갇혀서 10여 명의 아이를 낳느라, 이른 죽음을 맞이한 누 이고와 마찬가지로 매년 아이를 낳고 있는 미나 퓨어포이의 모습을 부각시킴으로써, 아이 낳은 기계로 전략한 여성의 위치를 강조한다.

미나 퓨어포이의 남편은 마치 시계처럼 정확하게 그녀를 임신 시켜서 일 년에 한 명 아니면 쌍둥이를 낳게 해서 그녀에게서는 항상 아기 냄새가 나곤 하지. (U18. 159-62)

몰리가 비판적으로 지적하고 있듯이, 미나 퓨어포이에게서 항상 나는 아기 냄새는 바로 그녀의 냄새를 지우는, 다시 말하면 그녀의 독립된 정체성을 지우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율리시스』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상속자인 아들"(U6. 85)이라는 구절은 『모성의 기쁨』에서 강조되고 있는 남아 선호 관념이 『율시시스』에도 깊게 자리 잡고 있음을 드러낸다.

블룸은 솜버트헤이, 비엔나, 부다페스트, 밀라노, 런던 및 더블 린으로 이주한 루돌프 비러그의(이어서 루돌프 블룸으로)와, 율리 우스 히긴즈(본명은 카롤리) 및 파니 히긴즈(본명 헤가티)의 차녀, 엘렌 히긴즈 사이에 태어난, 외동 남성 성변화 상속자이다. 스티븐은 고크에서 더블린으로 이주한 사이먼 데덜라스와 리처드 및 크리스티나 고울딩(본명 그리어)의 딸 메리 사이에서 태어나 살아남은 남성 동질 상속자이다. (U18. 534-9)4)

『율리시스』의 두 남성 인물인 블룸과 스티븐을 규정하는 과정에서 블룸은 루돌프 비러그 블룸의 상속자이고, 스티븐은 사이먼 데덜라스의 상속자로서의 공통점을 분명하게 드러낸다. 즉, 20세기 아일랜드에서도 호머의 시대와 마찬가지로 가족 체계 내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바로 "아버지와 아들" 관계이며, 이것은 "상속"의 체계를 통해서 공고화되고 계승된다.

이러한 남성 중심적 가부장 사회에서의 여성의 역할은 남성들의 욕망의 대상으로 전략한다. 킴벌리 제이 델빈(Kimberly J. Delvin)의 지적하듯이, "모피를 입은 비너스(Vinus in Furs)," "희희덕거리는 10대," "좌절한 가정주부," 그리고 "직업적 매춘부"등과 같이 몰리가 "쓰는 다양한 여성성의 가면들"(Delvin 72)은 이러한 측면을 반영한다. 또한 18개의 에피소드로 구성된 전체 텍스트에서, 몰리 블룸에게 할애하고 있는 마지막 에피소드만을 제외하고 17개의 에

⁴⁾ 필자 강조

피소드가 남성 인물들인 블룸과 스티븐에게 할당되어 있는 점은, 현실적 공간에서의 "남성들의 의한 공간의 점유와 여성들의 배제"를 드러낸다. (Garvey 109)이는 "전통적으로 국가와 교회의 권위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남성 주체들에게 할당된 '아버지'와 '남편'"이라는 위치가 서구 사회에서 얼마나 뿌리 깊게 고착되어 있는 지를 보여준다.(Froula 19) 뿐만 아니라, 히더 쿡 캘로우(Heather Cook Callow)가 지적하듯이 「페넬로페」에피소드의 서술 방식이 극단적인 내적 독백이라는 점과 그녀의 공간이 전적으로 침실과 침대로 한정되고 있는 점, 그리고 시간을 "밤"으로 한정하는 측면들은 당대 사회에서의 여성의 소외된 처지를 드러낸다.

그녀의 서사의 시간과 위치는 중요성을 갖는다. 밤, 어둠. . . 침 묵은 전통적으로 여성과 연결되는 내용이었다. . . (몰리의 서사 는) 전혀 발화되지 않는 내적 독백이기 때문에 그것은 또한 일종 의 침묵인 셈이다. (Callow 465)

몰리에게는 한정되어 있는 외적인 발화가 전무한 내적 독백이라는 서술 장치는 결국 그녀가 당대 사회 속에서 강요당하는 "침묵"을 반영하는 것이며, 밤이라는 시간은 사회 속에서의 "활동의 제약"을 드러내는 장치인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모성의 기쁨』과 『율시시스』는 당대의 가부장적 사회가 여성들에게 강요한 일부다처제적 요소와 남아 선호 사상을 텍스트 속 에서 날카롭게 포착하여 여성에게 지워진 "역사적 제약들"(Herr 132)을 드러 내고 있다.

[[]. 식민지적 상황에서 기인하는 여성의 이중적 고통

조이스의 아일랜드가 영국의 식민지에 놓여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1930 년대의 나이지리아 역시 영국의 식민지지배하에 놓여 있었으며, 『율리시스』 의 첫 에피소드인「텔레마커스」("Telemachus")에서 스티븐의 자의식 속에 영국의 지배하에 놓여 있는 피지배국민인 자신의 처지에 대한 자의식이 깊숙이 들어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이지리아인들 역시 자신들의 이러한 처지에 대한 인식이 깊숙이 들어와 있다.

마치 신이 우리를 소유하듯이 영국인들은 우리를 소유하고 있어. 그리고 그들이 원할 때는 마치 신이 그러하듯이 자유롭게 우리에게서 무엇이든지 빼앗아가지. $(JM\ 165)$

이러한 식민지 상황은 여성들에게는 훨씬 더 복잡한 이중의 고통을 전가하 게 되는데, 두 작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력을 보여준다.

먼저 『모성의 기쁨』에서, 이메체타는 의도적으로 텍스트의 공간을 식민지적 영향력이 직접적으로 미치는 공간인 라고스와 그 영향력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이부자(Ibuza)라는 두 개의 공간으로 나눈다. 전자인 라고스에서는 『율리시스』에서와 마찬가지로 "제국주의의 폐해"(Fairhall 182)가 곳곳에서 드러난다. 이곳은 누 이고가 추장의 딸이라는 특권적 위치에서 백인들의 세탁부 "노예"의 아내로 급격한 신분 하락을 경험하는 공간이며, 그녀를 지독한 가난으로 내몰아 힘든 노동 속에서 허우적거리도록 만드는 공간이다. 더욱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곳에서는 이부자에서는 보장받았던 여성들만의 공간이 전혀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누이고는 가족 모두가 한 방에서 생활하는 가운데 남편과 다른 아내의 정사를 그대로 감내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게된다. 또한 라고스는 누 이고의 남편인 나이페를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전쟁에 강제로 동원해가는 공간이기도 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라고스"라는 식민화된 공간이 "이부자"와 결정적인 차이를 드러내는 것은 남성들이 "여성화"되는 공간이라는 점이다. 이것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바로 나이페의 직업으로, 그는 백인들의 "속옷을 빠는 노예"이다. 이메체타는 나이페의 이 모습에 대한 경멸을 드러내는 누이고의 속내를 통해 이것이 갖는 상징성을 강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이페와 이부자에 있는 누이고의 아버지인 아그바디(Agbadi)를 대조시킴으로써 식민지화된 상황에서 남성들이 얼마나 무력해졌는가를 보여준다.

누코차 아그바디는 부유한 추장이었다. 그는 위대한 싸움꾼이었고, 달변가인데다가 연설에 재능이 있었다. 그의 연설 속에 적절한 일화들과 신중하게 선택한 속담들을 적절하게 가미했다. 그는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키가 컸다. 신체적인 용맹함으로 그 사람의 역할을 결정하는 시대에 태어난 덕분에 사람들은 그를 지도자로서 받아들였다... 마치 자신이 신인 것처럼 그는 가족과 아이들을 통치했다. (JM 5-11)5)

라고스라는 공간에서는 부유하고 위대한 싸움꾼이자 용맹하고 훌륭한 연설을 하는 아그바디와 같은 이부자의 남성이 "키가 작고," "첫 날 밤에 경멸당하는"(JM 44) 나이페의 모습으로 전환되는 공간인 것이다. 신처럼 군림하는 아그바디와의 모습과는 정반대로, 나이페는 "그 당시에 그들이 어리석다는 말을 듣는데 너무나 익숙해져서 그들 자신의 불완전함을 믿기 시작한 아프리카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JM 90-91)이 되어간다. 이렇게 남성성이 결여되고 위축되는 나이페의 모습은 바로 제국주의 식민지하에서 살아가는 남성들의 모습을 대변하는 것이며, 결국, "라고스에서의 삶은 그에게서 남성성을 앗아가고 힘든 일을 하는 능력을 앗아 갔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를 잉여적 존재"(JM 94)로 만들고 마는 것이다.

이처럼 식민화 과정은 그 이전까지 그 사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남성들에게서 한 인간으로서의 자존감과 자신감을 상실하게 만들고, "남성성을 상실하게 하여 아내들과 자식들에게 쓸모없는 존재가 되도록 만든다"(Barthelemy 567). 뿐만 아니라 제국주의 모국의 전쟁에 남편들을 강제로 징집해감으로써 남은 "여성들은 홀로 가족들을 돌보아야하는"(Adams 295) 이중 삼중의 집을 짊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조이스는 이미 『더블린 사람들』(Dubliners)에서 식민지하에서 무기력해지고 무책임하고 자존감을 상실한 남성들의 모습을 무니(Mr. Moony)나 다른 인물들을 통해 보여준다. 이들 무기력한 남성들은 직장에서 무시당한 것을 달래기 위해서 술을 마시고, 힘이 약한 아내나 아이들에게 폭력을 행사한다. 이처럼 남성들을 무력화시키는 "남성의 여성화"시키는 측면은 『율리시스』에서도

⁵⁾ 필자 강조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요소이며, 이 텍스트의 중심인물인 블룸은 여성화를 겪은 대표적인 인물이다. 물론, 블룸의 여성화를 단순히 부정적인 측면만이 아닌 긍정적인 요소를 내포하는 양가성을 지니고 있지만, 일차적으로는 당시의 가부장적 사회적인 구조 속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여성의 위치로 남성이 전략한다는 측면에서는 권력으로부터의 소외를 함축하는 측면이 크다고 할수 있다.

블룸의 여성화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마사와의 편지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필명으로 헨리 플라워(Henry Flower)를 사용함으로써 "꽃"이라는 단어 속에 내포된 여성성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키르케」("Circe")에 피소드에서는 매춘부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그 정점을 이룬다. 이렇게 블룸의 여성화, 그것도 매춘부로의 전환은 자신의 성적 행위에 대해서도 주도권을 상실하고 자신의 "성"(sex)마저도 상품으로 전락시키는 위치로의 추락을 의미하기 때문에, 당시 사회에서 피식민지 남성들의 주도권상실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남성들의 "여성화"의 문제와 "매춘부"가 환기시키는 내용 사이에는 남녀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권력관계의 측면이 내포되어 있다. 즉, 『율리시스』와 『모성의 기쁨』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이 "매춘" 혹은 "매춘부"의 문제는 역사적으로 결혼제도를 통해서 존재해 온 남녀 관계 역시 근본적으로는 "매춘"에 지나지 않았음을 함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들을 낳지 못해서 나이페 집안에서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아다쿠가 집을 뛰쳐나가려고 할 때, 그녀가 극단적인 생존수단의 하나로써 매춘부가 되겠다는 언급을 한다. 이에 누 이고는 상당한 충격을 받는 모습을 보이지만, 사실일부다처제와 남아선호사상이 팽배한 결혼제도와 사회적 분위기에서 가정 내에서의 남녀관계는 이미 불평등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율리시스』의 "매춘부" 장면은 인격을 상실한 채 마소처럼 매매되는 장면이었다. 표면적으로는이라한 매춘부의 모습과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한 남자의 아내라는 위치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일부다처제와 오직 남아만을 숭배하는 가정이라는 틀 내에서 여성이라는 한 개체의 독립된 정체성을 기대하기는 힘들다고 했을 때, 돈을 받고 자신의 몸에 대한 주도권을

내어준 것이나, 자신을 보호해주는 대가로 남편에게 아들을 낳아주는 도구로 전락한 아내라는 위치나 크게 다를 것이 없기 때문이다.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남성들은 "노예"로 상징되는 지위상실 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렇듯. 남편으로서 그리고 아버지로서의 이들의 위상의 추락은 식민지 사회에서 주도권을 상실하고 위축된 당시 아일랜드 남성들의 전반적인 상황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노예화" 한 남성들의 하부에 있는 여성들이 겪어야하는 이중적 억압의 문제를 두 텍스트 모두 놓치 지 않고 있는 것이다. 즉. 남편들과 아버지가 자신들의 아내와 자식들을 돌보 는 데 있어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추락하게 되면, 그 모든 책임은 고스란히 아내와 딸들에게 전가됨으로써 식민지 사회의 여성들은 이중의 고통 을 떠안게 된다. 이블린(Eveline)과 무니 부인(Mrs. Moony)이 경험하는 극단 적인 생활고의 문제나, 누 이고가 감당해야하는 혹독한 노동, 그리고 나이페의 두 번째 아내로서의 자리를 내던지고 "노라"처럼 과감하게 집을 뛰쳐나가려고 하는 아다쿠가 "매춘"을 떠올리는 것은 모두 당시의 여성들이 처한 현실적인 상황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 폭력적인 남편과의 별거를 과감하게 결정한 무 니부인이 두 아이들과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선택한 방식이 자신의 딸을 젊은 남자들을 하숙생으로 받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하숙집을 운영하는 것과도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폴리는 안정된 가정을 얻기 위한 결혼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이미 하나의 수단으로 전락시켜 도란을 유혹하고 마침내. 그를 남편으로 맞이하는 과정을 보다 광범위하게 해석해 본다면. 이것 역시 일 종의 "매춘" 행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식민지 지배의 상황은 누 이고의 남편인 나이페를 영문도 모른 채, 죽을 지도 모르는 전쟁에 강제도 동원되는 상항으로 치닫게 되는데, 비록 텍스트에서는 그가 살아 돌아왔지만, 만일 그가 전사자가 되어 돌아오지 못했다면, 누 이고와 그녀의 아이들은 생존을 위해서 아다쿠와 같은 선택을 하는 상황으로 치달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아일랜드와 나이지리아가 각각 영국의 식민지라는 상황은 남성들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이것은 또한 누 이고와 몰리 블룸과 같은 여성들의 삶을 이중 삼중의 질곡으로 몰아넣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IV. "모성성"의 허상 극복을 위한 가능성 제시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와 영국의 식민지배라는 이중의 억압이 존재하는 나이지리아 사회에서 "어머니로서 그리고 아내로서" 누이고는, 당시사회가 그녀에게 주입시킨 "모성의 기쁨"이라는 허상에서 끝내 벗어나지 못하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다. 마흔 살이 조금 넘은 나이에 길을 걷다가 힘이 소진해서 허무하게 죽는 누이고의 삶은, 지속적인 출산과 그 아이들을 볼보기위한 힘든 노동, 그리고 남편의 다른 아내를 감내해야만 하는 정신적 고통으로 점철된 것이었다.

누 이고나 미나 퓨어포이의 비참한 삶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여성주체들 스스로도 "모성의 기쁨"이라는 왜곡된 이데올로기의 허상에서 빠져나와야한다는 점에서 제임스 조이스와 이메체타는 공통된 인식을 보여준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텍스트들에 당시 사회에 그녀들에게 강요하는 가부장적 가치관에반기를 드는 여성 인물들을 등장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율리시스』의 몰리 블룸은 당대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의 틀을 뚫고 나오는 새로운 여성상의 전형을 보여주고, 『모성의 기쁨』에서는 누 이고와는 다르게 사회가 요구하는 전통적인 여성상의 틀에서 벗어나려고 시도하는 오나(Ona), 아다쿠, 그리고 누 이고의 딸인 케힌드가 등장한다. 오나는 일부다처제에 편입되는 것을 거부하기 위해서 결혼 그 자체를 거부한다. 케힌드는 아버지인 나이페가 정해준 혼처를 거부하고 자신이 선택한 상대와 결혼하겠다고 정면으로 아버지에게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특히 아다쿠는 모습은 매우 인상적으로 등장한다. 그녀는 2차 세계대전으로 나이페가 징집되어 집을 떠나 있는 동안에, 누 이고와 갈등이 생겼을 때 아들 을 낳지 못했다는 이유로 집안으로부터 철저하게 무시를 당하자, 과감하게 그 집을 나가 독립하겠다는 선언을 한다.

내가 왜 이 모든 것들을 견뎌야 하죠? . . . 나는 내일 이 숨 막히는 방을 떠나겠어요, 첫째 부인. . . 매춘부가 되겠어요. . . 이부자로 돌아가지는 않을 거예요. . . 내 딸들은 이 세상에서 자신들의

운명을 살아가겠죠. . . 여기서 계속 머물다가 미친 여자가 되지는 않겠어요. 단지 아들을 낳지 못했다는 이유로 말이죠. . . 우리 여성들이 우리 자신들에게 불가능한 기준을 세워놓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우리는 서로에게 참을 수 없는 인생을 만들고 있는 거라 구요. . . 나는 나 자신의 기준을 만들었어요. (JM 187-89)6)

아다쿠가 내뱉는 말들은 『모성의 기쁨』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당대의 여성의 현실적 상황에 대해서 여성의 입장에서 진술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당시의 남성들뿐만 아니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에 감염되어 있는 여성들의 의식 속에서 스스로를 "모성"의 틀 안에 가두어 놓고 고통을 감내하는 상황에 대한 반기를 들면서,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그 모든 것들을 견디는 것"을 거부하겠다고 선언한다. 남성들이 세워놓은 기준을 "자신들의 기준"으로 받아들이면서 서로를 구속하고 있는 누 이고와 같은 여성들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그녀는 "자신만의 기준"을 세워서 살아가겠다고 선언한다. 설령 그것이 매춘부가 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더 이상은 외부로부터 규정된 기준에 맞추어 살지는 않겠다고 말한다. "매춘부"라는 말에 당혹감을 느낀 누 이고가 딸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엄마로써 할 소리는 아니라고 반박하자, 아다 쿠는 자신의 딸들은 "자신들의 운명대로 살아가겠죠"라고 말함으로써 "모성"이라는 굴레를 과감하게 깨고 나오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러한 아다쿠의 모습은 "모성"이라는 "책임감" 안에 갇힌 것이라는 사실을 막연히 깨달으면서도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은 꿈조차 꾸지 못하는 누 이고와 는 확연한 차이를 드러내는 것이다.

그들의 방으로 돌아가는 길에 누 이고의 머릿속에 다음과 같은 생각이 갑자기 떠올랐다. 자신은 아이들에 대한 자신의 사랑으로 인해서 감옥 속에 갇혀버린 죄수가 아닌가하는 생각 말이다. . . 남 자들이 그녀를 노예로 만들기 위해서 영리하게 여성의 책임감을 이용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고 그녀는 느꼈다. 그들은 그녀 자신과 같은 전통적인 아내들은 자식들을 떠난다는 것을 꿈조차 꾸

⁶⁾ 필자 강조

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다. (JM 153)7)

누 이고 역시 "모성" 때문에 자신의 욕망이나 자신의 행복을 망각한 채 살아 가고 있음을 깨닫고 이러한 삶의 방식의 유지를 고집하는 남성중심의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끼지만, 자신은 결코 아이들을 버리고 자신의 삶을 선택하 지 못할 것이라고 자신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으로 『율리시스』의 중심 여성 인물인 몰리는 이 텍스트의 "흥미의 중심"(Letters 170)인 마지막 에피소드에서 오디세우스에게 순종적이며 수동적인 페넬로페와는 달리, "자기 자신의 생각과 환타지, 자신의 응시와 욕망의 저자로서 독립적인 여성의 모습"(Pearce 40)을 드러낸다. 또 극단적으로 구두점을 자제한 "비논리적이고 비문법적이며 비목적론적인"(Castle 324) 내적 독백의 방식을 통해 몰리는 남성 담론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면서, 당시의 남성들의 편협한 남성 우월주의를 효과적으로 공격한다. 즉, 그녀의 언어는 원초적이면서도 가장 단순한 방식으로 남성 중심주의의 허점을 공격한다.

그들은 여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어머니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른다. 그들을 돌보아 줄 어머니가 없다면 그들 모두는 어떻게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있겠는가? . . . 나는 아들이 하나도 없지. 그가 만들 수 없었기 때문인 거지, 내 잘못은 아니라구. (U18, 1440-6)8)

그녀는 남성들이 아무리 잘났다고 의시대도 결국 그들을 낳아주고 길러줄 어머니의 존재, 즉, 여성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조차 없다는 가장 기본적인 사실을 들어서 남성들을 공격한다. 더 나아가, 지금 그들 부부에게 아들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도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남성인 블룸의 잘못이라고 당당히 주장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마지막 에피소드 전까지 주로 "스티븐과 블룸의 시선"(Pearce 44)과 욕망의 대상으로만 존재하던 몰리가 비로소 자신의 입장에서 "해방된 혹은 해방되고 있는 목소리"(Herr

⁷⁾ 필자 강조

⁸⁾ 필자 강조

72)로 남성들을 정면으로 공격하고 있는 것이다. 이 지점에서 이제까지 텍스트를 지배하고 있던 "블룸의 의식"이 "몰리의 의식에 그 자리를 양보"(Harper 244)하면서 기존의 남성적 시각에서 기술된 모든 담론들을 여성의 입장에서 다시쓰기 작업을 시작하게 된다.

몰리는 우선 남편인 블룸의 육체적 욕망의 해결이 필요함을 인정하면서 동 시에 자신의 성적 욕망에 대해서 도덕적 제어나 주저함 없이 그대로 드러낸다.

그이는 아마도 그것을 하지 않고는 그렇게 오랫동안 견딜 수는 없을 테지 그래서 어딘가에서 (누군가와) 그 짓을 해야만 하는 거겠지 ... 나는 멋진 소년에게 돈을 주고 그 짓을 해달라고 시킨다면 ... 젊은이는 나를 좋아 할거야 둘이 단둘이 있게 되면 새 양말의 대님을 그에게 보여서 그를 당황하게 만들거야 그러면 그는 얼굴이 빨개지겠지 ... 먼저 결혼 같은 것을 하지 않고서는 왜 키스할수 없는 걸까 때때로 거칠게 사랑하고 싶을 때가 있지 그럴 때면 어떻게 진정할 수도 없는 걸 나는 어떤 남자든 나를 팔로 감싼 다음에 길고 거의 영혼을 마비시킬 만큼 강렬한 세상에 그 무엇에도 비길 데 없는 그런 강렬한 키스를 해주기를 정말 바란다고 (U18. 76-106)

블룸이 자신의 성적인 욕망을 아내인 자신과 해결할 수 없을 때 "다른 곳"에서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면, 여성인 몰리 자신도 성적 취향과 욕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과감하게 드러낸다. 더 나아가 보일런이라는 정부를 가지고 있음을 당당하게 표출한다. 남자들이 매춘부를 사서 자신의 욕망을 해결하듯이 자신 역시 "돈을 주고" 젊은 남성과 성행위를 하고 싶다는 욕망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드러낸다. 뿐만 아니라 몰리는 여성이 남성과 신체적 접촉을 하기 위해서는 왜 반드시 결혼 제도에 편입되어야만 하는 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한다. 이러한 모습은 19년이라는 긴 세월을 지혜와 인내로 정숙함을 지켜냈던 "현모양처"의 대명사 페넬로페와는 상반된 모습이다. 『율리시스』는 『오디세이아』가 세워놓은 "아버지와 왕의 법을 거부"(Froula 195)한다. 몰리는

⁹⁾ 필자 강조

비록 "윤회"(metempsychosis)라는 단어 뜻조차 몰라서 남편인 블룸에게 무시를 당할 정도로 무식하지만(U4. 337-43), 남편에게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는 가부장적 가치관을 거부한다. 또한 그녀는 블룸이 자신의 배변행위나 방뇨 행위에 대해서 자유롭게 표출하듯이, 몰리 역시 월경이나 방귀 등 자신의 신체의 작용에 대해서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표현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성적 욕망에 대해서도 유부녀라는 자신의 사회적 위치 속에 가두는 일없이 자유롭게 표출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러한 "가부장적 통제를 벗어나는 몰리의 여성적 에너지의 방출"(Brivic 748)을 통해 몰리의 언어의 강력함을 드러낸다.

또한 누 이고와 몰리는 남성 중심 사회가 가진 심각한 문제가운데 하나로 전쟁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력을 드러내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누 이고는 전쟁에 징집되어 가는 나이페에게 "당신은 백인들의 돈이라는 미명하에 여성들과 아이들을 죽이고 강간하며 모욕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건가요?"(JM 96)라고 반문함으로써 제국주의 전쟁의 가장 직접적인 피해자가 바로 여성임을 날카롭게 포착하고 있다. 몰리 역시 "그들은 서로를 죽이고 파묻는 것을 우정이라고 부르지"(U 18.1270-1)라고 꼬집음으로써 남성들이 역사의 주도권을 쥐고 흔드는 과정에서 저질러 온 전쟁이라는 파괴적 행위를 지적한다.

V. 결론

위에서 『모성의 기쁨』과 『율리시스』에 공통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여성들에게 강요되어 온 왜곡된 모성과 허위적 여성성, 영국의 식민지배하의 공간에서 이중 삼중으로 질곡을 겪는 여성들의 삶, 그리고 가부장적 남성 이데올로기를 극복하기 위한 여성인물들의 시도들을 살펴보았다.

이메체타는 여성 작가의 관점에서 절제된 리얼리즘과 아이러니적인 방식으로 모성성에 희생되는 누 이고의 비극적 삶을 중심에 두고 그녀와는 다른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 아다쿠와 케힌드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는 누 이고의 비극적 삶이 되풀이되어서는 안된다는 명제를 효과적으로 부각시켰다. 또한 두 텍스

트의 배경이 모두 영국의 식민지하에 놓여 있는 공간으로 제시되어 있고, 이러한 상황은 남성인물들을 여성화시키고 무능력하게 만듦으로써 여성들을 더욱 가혹한 삶의 상황 속으로 몰아가는 모습 역시 잘 드러나고 있다. 한편으로 『율리시스』는 서구 역사 속에서 현모양처의 대명사인 페넬로페에 강력하게 저항하는 몰리 블룸의 강력한 내적 독백을 텍스트에 마지막에 배치함으로써 그녀이전의 남성 서술자들의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효과적으로 전복시킨다.

그러나 『모성의 기쁨』에서 기존의 가치관을 거부하는 여성들의 의지가 곧바로 현실 속에서 성공으로 이어지는 못한다는 점과, 몰리 블룸의 통쾌한 서술이 철저하게 내적 독백에 갇혀 있다는 사실은 두 텍스트의 배경이 되는 당대 현실이 아직은 여성들이 원하는 삶을 실현하기에는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음을 드러낸다. 오나가 결혼 제도를 거부할 수 있었던 토대는 그녀가 추장의 외동딸로서 경제적인 부담에서 자유로웠기 때문이며, 케힌드가 자유 연애를 선언했을때, 나이페가 칼을 들고 격렬하게 반대하는 장면은 아프리카에서 여성들의 속박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또한 일부다처제와 남아 선호 사상 때문에 자신을 숨막히게 하는 가정을 벗어나려고 하는 아다쿠의 유일한 대안이 "매춘부가 되는 것"이라는 점은 당시 "가정"을 뛰쳐나간 여성들의 현실적인 한계를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또한 1930-50년대를 살아가는 누 이고의 아이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여자와 남자 사이에 커다란 간극을 발견하게 된다. 지독한 가난의 굴레 속에서도미국 유학을 가게 되는 큰 아들 오쉬아(Oshia)나 적어도 중등교육 그리고 고등교육까지는 받게 될 가능성이 높은 아딤(Adim)에 비해서 교육의 기회가 거의 부여되지 않는 누 이고 딸들에게는 아버지에게 지참금을 벌어다주고 자신들을 남성들의 소유물이 되는 결혼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어 보인다. 이는 두텍스트의 두 여성 인물들의 한계와 직결되는 문제인데, 누 이고 와 몰리 블룸은 공통적으로 제대로 된 근대교육을 받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누 이고는 거의 문맹에 가까우며, 몰리블룸은 "윤회"와 같은 어려운 단어를 전혀 이해하지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는 당대 아일랜드 사회에서 몰리 블룸과 같은 교육도 제대로 못 받은 가난한 하류층 여성이 공적으로 발언권을 확보하는 것이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들어내는 극단적 내적 독백장치는 그녀의 삶의 공간

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조한나 가베이(Johanna X. K. Garvey)가 지적 하듯이, 더블린 거리를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있는 스티븐이나 블룸과는 달리 몰리에게 허용된 공간은 "집안"으로 한정되어 있는 측면은 이를 잘 반영하고 있다.(Garvey 114) 하물며 문맹 상태에 가까운 누 이고가 자신의 독립적인 의식과 발언권을 갖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모성의 기쁨』과 『율리시스』는 1904년과 1950년대라는 다른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각각의 사회 속에서의 여성들의 위치와 한계를 여성인물들의 삶의 모습, 그리고 가부장적 이데올로기가 강요하는 "여성성"과 "모성성"의 허위성과 문제점, 그리고 그에 대한 대안을 효과적으로 드러냈다고 할수 있다.

인용문헌

- Booker, M. Keith. *Joyce, Bakhtin, and the literary tradition: toward a comparative cultural poetics.* Ann Arbor: U of Michigan P, 1995.
- Brivic, Sheldon. "The Veil of Signs: Perception as Language in Joyce's *Ulysses.*" *ELH* 57.3 (Autumn 1990): 737-55
- Bruner, Charlotte. "The Other Audience: Children and the Example of Buchi Emecheta." *African Studies Review*, 29.3 (Sep. 1986): 129-40.
- Callow, Heather Cook. "'Marion of the Bountiful Bosoms': Molly Bloom and the Nightmare of History." *Twentieth Century Literature* 36.4 (Winter 1990): 464–76.
- Castle, Gregory. "Ousted Possibilities: Critical Histories in James Joyce's *Ulysses*". *Twentieth Century Literature* 39.3 (Autumn 1993): 306–28.
- Devlin, Kimberly J. "Pretending in 'Penelope': Masquerade, Mimicry, and Molly Bloom." *NOVEL: A Forum on Fiction* 25.1 (Autumn 1991): 71–89.
- Emecheta, Buchi. *The Joys of Motherhood*. Harlowe, Essex: Heineman, 1979.
- Ezeigbo, Theodora Akachi. "Traditional Women's Institutions in Igbo Society: Implications for the Igbo Female Writer." *African Languages and Cultures* 3.2 (1990): 149–65.
- Fairhall, James. *James Joyce and the Question and History*. New York: Cambridge UP, 1993.
- Froula, Christine. *Modernism's Body: Sex, Culture, and Joyce.* New York: Columbia UP, 1996.
- Garvey, Johanna X. K. "City Limits: Reading Gender and Urban Spaces in *Ulysses*". *Twentieth Century Literature* 41.1 (Spring 1995): 108–23.
- Harper, Margaret Mills. "'Taken in Drapery': Dressing the Narrative in The

- Odyssey and 'Penelope'." *Molly Bloom.* Ed. Pearce, Richard. Wisconsin: U of Wisconsin P, 1994. pp 237–263.
- Herr, Cheryl. "'Penelope' as Period Piece." *NOVEL: A Forum on Fiction* 22.2 (Winter 1989): 130–142.
- Irigaray, Luce. *An Ethics of Sexual Difference*. Trans. Carolyn Burke and C Gill. London: Continuum, 1993.
- _____. Sexes and Genealogies. Trans. Billian C Gill. New York: Columbia UP, 1978.
- Joyce, James. Ulysses. London: Penguin, 1992.
- _____. Selected Letters of James Joyce. Ed. Richard Ellmann. London: Faber, 1975.
- McCormic, Kathleen. "Reproducing Molly Bloom— A Polylogue on 'Penelope'." *Molly Bloom.* Ed. Richard Pearce. Wisconsin: U of Wisconsin P, 1994. 17–39.
- Pearce, Richard. "How Does Molly Bloom Look through the Male Gaze?".

 Pearce, Richard. Ed. *Molly Bloom.* Wisconsin: U of Wisconsin P, 1994. 40-60.
- _____, ed. Molly Bloom. Wisconsin: U of Wisconsin P, 1994.
- Polatnick, M. Rivka. "Diversity in Women's Liberation Ideology: How a Black and a White Group of the 1960s Viewed Motherhood." *Signs* 21.3 (Spring 1996): 679-706
- Spoo, Robert. "Teleology, Monocausality, and Marriage in *Ulysses*." *ELH* 56.2 (Summer 1989): 439-62.
- Sternlieb, Lisa. "Molly Bloom: Acting Natural Molly Bloom." *ELH* 65.3 (Fall 1998): 757–78.
- Ward, Cynthia. "What They Told Buchi Emecheta: Oral Subjectivity and the Joys of 'Otherhood'." *PMLA* 105.1 (Jan. 1990): 83-97.

Abstract

Dismantlement of the falsehood of Motherhood and of Womanliness in *The Joys of Motherhood* and *Ulysses*

Lee, Youngshim

Both in the Western society and in the Eastern society the concept of "a chaste wife and good mother" has been considered as the most important virtue of a woman. The problem regarding this notion is that it replaces the individuality of a woman with the role of a wife and mother.

Emecheta's *The Joys of Motherhood* and Joyce's *Ulysses* commonly focuses on the falsehood of motherhood with different narrative methods. *The Joys of Motherhood* highlights the miserable life and the tragic death of Nnu Ego who is trapped by the concept of "motherhood" in both the traditional African place of "Ibuza" and the modern place of "Lagos."

Ulysses evokes Penelope, the most exemplary good wife and wise mother, and then replaces her with Molly whose character is contrary to that of Penelope who keeps her chastity in spite of the absence of her husband for 19 years. Molly's powerful inner monologue, which is arranged in the last chapter, enables her to subvert the statements of male characters such as Deacy and Citizen who reveals patriarchal perspectives. Molly flaunts her own sexual desire and sexual intercourses with other men, dismantling the double standard about chastity in the western society.

Key words: feminism, motherhood, patriarchal system, Buchi Emecheta, James Joyce

페미니즘, 모성성, 가부장주의, 부치 이메체타, 제임스 조이스

268 영미연구 제27집

논문접수일: 2012. 10. 29 심사완료일: 2012. 11. 23 게재확정일: 2012. 12. 15

이름: 이영심

소속: 한성대학교

주소: (130-08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268-264 303호

이메일: youngsta@dreamwiz.com